



12·19 재·보선 현장을 가다

<4> 광역의원·기초의원

신당-민주당 후보에 무소속 도전 거세

6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대선이나 기초단체장 재·보선에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두 곳의 광주시의원 재선거에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의 도전도 거세다. 동구1선거구 후보들은 '도심 공동화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북구3선거구는 '교육·교통·환경 개선'을 화두로 저마다 '지역의 일꾼'을 자임하며 정책경쟁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원

◇광주 동구 제1선거구=통합민주당 신당 양혜령(여·45) 후보와 한나라당 백일선(49), 민주당 김종민(55), 무소속 구봉우(59) 후보 간 4파전으로, '호남 정치 1번지'답게 선거 열기 또한 뜨겁다.

치과의사로 통합민주당 광주시내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혜령 후보는 양형일 의원의 지원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한 동구 개발, 문화예술진흥특구 지정, 유급 가정 복지도우미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양 후보는 "도심 공동화로 위기에 처한 동구를 주거환경 정비와 환경친화적 재개발로 희망의 보급지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나라당 백일선 후보는 뉴라이트 립21봉사단 동구 사무국장 겸 전국컴퓨터판매협회 광주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살기 좋



〈양혜령 후보〉 〈백일선 후보〉 〈김종민 후보〉 〈구봉우 후보〉 〈전우근 후보〉 〈박만수 후보〉 〈김조순 후보〉 〈김상룡 후보〉 〈송태중 후보〉

은 도시만들기'도 주요 공약. 백 후보는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인·저소득층 복지수준을 강화하고 사정 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표발을 누비고 있다.

3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의정활동 경험을 내세워 주민대변자로서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차질 없는 재개발,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특화거리 조성, 권역별 문화인프라 구축, 건강도시 건설, 지역별 청소년도서관 등 '7대 동구발전 비전'을 내걸고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김 후보는 "낙후

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통합민주당 나래향시장 주변에 '비엔날레 거리'와 '남도음식 명가촌' 등을 조성,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호남고속도로

대통합민주당 전우근 후보는 비엔날레향시장 주변에 '비엔날레 거리'와 '남도음식 명가촌' 등을 조성,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호남고속도로

광주 동구 신당-한나라-민주-무소속 4파전

광주 북구 교육·교통·환경 개선 최대 화두

된 동구를 명실상부한 호남의 수도로 재건하겠다"고 역설했다.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무소속 구봉우 후보는 광주시 등에서 15년간 쌓은 행정경험과 자연보호동구협의회장 경력을 밑거름으로 시정에 혁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 보호육성대책 기구 운영, 문화도시 관광벨트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공공보육센터 설립과 경로당의 가내공업센터 활용

용봉IC진입로 개설로 북구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복지 증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요량이다.

이명박 후보 광주시조직담당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만수 후보는 버스정보시스템과 임동~발산다리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 설치, 임동 나산 클레프 앞 일방통행 해제 등 교통여건 개선에 정책의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소공민 내 체육시설 확충과 아동 결

■광주 동구 제1선거구 광주시의원 후보

정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
신당	양혜령	45	치과의사	전남대 치과대학원	여치과의사회 부회장	26억 8천만원	해당없음	1억 5천만원	없음
한나라당	백일선	49	컴퓨터판매	광주고	컴퓨터판매협회 광주대표	2천 700만원	군필	83만원	없음
민주당	김종민	55	복지재단이사	조선대 정치학박사	광주시의원	16억 2천만원	군필	3천 500만원	없음
무소속	구봉우	59	중앙일보지사장	광주대 무역학과	자연보호동구협의회장	15억 2천만원	소집면제	1천 289만원	1건

■광주 북구 제3선거구 광주시의원 후보

정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
신당	전우근	42	정당인	조선대 교육대학원	서산초운영위원	2억 9천만원	군필	115만원	없음
한나라당	박만수	54	정당인	동강대 1년 중퇴	전남매일 차장	0원	군필	0원	없음
민주당	김조순	46	서울혁일장	경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광주시당부위원장	5억 2천만원	군필	1천 761만원	없음
무소속	김상룡	68	무직	조대부고	북구의원	1억 2천만원	군필	759만원	없음
무소속	송태중	45	자영업	전남대 자연대	광주시의원	1억 300만원	군필	37만원	없음

식 은행 기금 마련,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조순 후보는 "시의원의 기본역량은 봉사자 헌신"이라며 출근길 길거리 청소와 복지시설 배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 복지도서관 건립, 유럽형 탁아시설·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 순회간호사 제도, 주민참여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우와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용봉동장과 북구의원을 지낸 무소속 김상룡 후보는 "어두운 곳을 보고,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용봉저수지 공원과 전남대 후문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지역대표 축제 육성 등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의원 출신인 무소속 송태중 후보는 용봉동 일대 기반시설 확충을 서둘러 도심 요충지로 만들고 임동은 금남로와 상무지구를 잇는 허리로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담장허물기와 꽃길 조성, 도로 조기 개설 등으로 북구를 쾌적한 주거환경공체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이 만족할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각오다.

기초의원

전남지역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모두 14명의 후보가 나서 3.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심부름꾼' 역할을 자처하며 표발을 누비고 있다.

◇나주 가 선거구=최영주(43) 전 남평농업경영인 회장이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민주당 후보로는 김혜원(43) 광주교육신문 편집위원, 나주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종운(49)씨가 무소속으로 나서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 4개 선거구 평균 3.5대 1 경쟁률

'지역 심부름꾼' 역할 자처 표발 누벼

원, 나주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종운(49)씨가 무소속으로 나서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암 라 선거구=통합민주당 김영환(50), 민주당 최병찬(45) 후보의 양자 대결이다. 김 후보는 전국한우협회

부회장과 영암축협 감사를, 최 후보는 군서청년회장과 군서농협감사를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농민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영광 나 선거구=무려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

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영철(57) 후보는 두 차례 영광군의회에 이어 굴비골농협조합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 전영근(56) 후보는 영광군학원연합회장을 지낸 뒤 시사랑굴비농협대표를 맡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군의원을 지낸 김강

현(51) 전 영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영광군 공무원 출신인 김천식(65) 후보, 이상근(55) 전 흥농읍상공인협의회장, 장기소(45) 전 백수청년회장 등 4명의 후보가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함평 가 선거구=통합민주당 임용수(42), 민주당 이화동(51), 무소속 정창우(43) 후보간 3파 대결 구도다. 임 후보는 '참신한운동'대표를 지냈고, 이 후보는 영대면면영회장을, 언론인 출신인 정 후보는 함평군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끝〉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송원 배구팀 명예 되찾아라



최재호

체육부 차장

지난 6일 학교법인 송원학원은 30년 전통의 명문 광주 송원여상·여중 배구팀의 해체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지난 10월29일 송원여상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배구협회에 배구팀 해체를 정식 통보한 지 한달여 만에 이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팀 해체라는 청천벽

력같은 소식이 철회돼 가슴을 쓸어내렸고,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체육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이번 행태를 바라보는 지역 체육계와 교육계, 학부모들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해체 동기가 감정적이고 교육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송원학원측은 배구팀 해체에 대해 "선수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 관리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 기관 등 지역여론은 그들의 팀 해체 이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표면상 이유였을 뿐, 실질적 이유가 지난 10월에 끝난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송원여상이 2회전에서 예선 탈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원여상은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단 7명의 선수로도 25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등 지난해 전국대회 3관왕에 등극,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여중도 전국 최정상급 선수를 키우는 요람이라 부르게 부족함이 없었다. 따라서 한두 번의 성적부진 때문에 해체라는 결정을 곧바로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감정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승에 민감한 프로스포츠클럽과 패배를 이유로 팀 해체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페어플레이와 패배에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정신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기관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해체 반복과 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교육계와 배구계 안팎에서 '송원이 2005년 특별교부금 13억여원을 지원받아 체육관을 지어놓고 선수 육성은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팀 해체분위기는 주춤해졌다.

이후 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이 "팀 해체는 안 된다"며 설득에 나서자 학교 측은 선수들이 모두 전학 갈 때까지 팀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래도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학교 측은 갈팡질팡하다 결국 팀 해체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송원여상 배구선수 학부모 A씨는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해놓고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팀 해체라는 통고를 받았었다"며 "없던 일이 됐지만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처부를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원학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명문사학, 배구명문으로 재도약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lion@kwangju.co.kr

**소비자가 믿고 찾는
올곧은 친환경농업
속성군이 앞장서겠습니다**

- 곡성군 친환경농업은 경지면적대비 40%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곡성에서 농심을 속이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Suncheon-gun Eco-friendly Agriculture